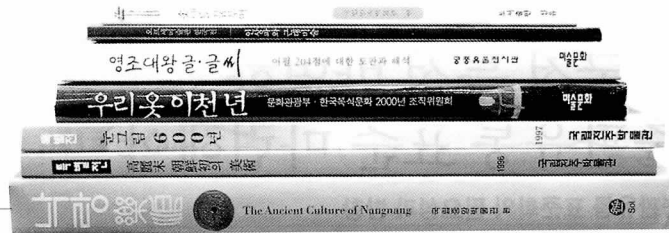


박물관 도록, 박물관에서 걸어나와 세상과 만난다

박물관 도록 출판의 현황과 과제



박물관 도록(圖錄)은 전시회를 글과 사진으로 남긴 일종의 기록물이다. 보통 전시회를 준비하는 큐레이터가 도록을 기획한다. 도록에는 기획전의 의의, 전시유물의 사진과 설명, 관련 논문들이 수록되며, 이는 큐레이터의 학술 성과로 평가받는다. 우리 도록 출판의 역사는 짧다. 박물관 수도 적고 특별전도 흔치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박물관 수가 급증하고 종류도 다양해지면서 다채로운 기획 전시를 열고 있어 도록 출판도 예전에 비해 활기를 띠고 있다.

1980년대 중반 넘어서 도록 출판이 걸어온 길은 세 시기로
도록 출판사 등장해 나뉘 살펴볼 수 있다. 1980년대 초
반까지는 박물관이 직접 도록을 제
작했고, 이를 관련 기관에 무료로 배포해왔다. 1980년대 중반부터
는 도록을 전문으로 펴내는 출판사가 하나 둘 생겨나면서 일반인
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 2000년대는 대중지향적인 도감
출판의 여명기인데, 학교재, 술, 미술문화 등 일반 단행본 출판사
들이 도록 출판에 뛰어들어 대중들을 겨냥해 책을 펴내고 있다.

현재 도록을 펴내고 있는 출판사는 대략 10군데 정도다. 통천문
화사는 1978년부터 국립박물관 도록을 도맡아 펴내온 도록 전문
출판사다. 신유문화사도 1980년대 중반부터 가세해 주로 국립민
속박물관 기획전 도록을 제작해왔다. 학교재는 미술전 도록을 몇
권 제작해서 판매하고 있다. 미술문화는 최근 1~2년 사이에 《영
조대왕 글씨》《우리 옷 2천년》 등을 펴냈는데, 후자는 대중적으
로도 성공을 거뒀다. 술은 국립중앙박물관이 월드컵 기간에 여는
한중일 유물 컬렉션 도록을 준비중이다. 술은 전시회장 디자인도
직접 꾸미는 등 도록 출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반인에게 박물관 도록은 여전히 낯설다. 기획전은 대중 전시
와 학술 전시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중 전시일 경우는 유물을 단순
나열하는 수준이라 도록이 볼품 없으며, 학술 전시는 일반인들이
다가가기 어려운 주제와 전문용어 때문에 외면당한다. 도록은 학
자들의 연구 자료나, 외국인 관광객, 관련 단체의 보관용 자료로
소화되는 것이 보통이다. 서울 시내 3개 대형서점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기도 하지만 판매되는 도록의 95%는 전시회 기간 동안 박
물관 매대에서 팔려나간다.

현재 박물관 도록은 1년에 30~50권 정도 출간된다. 초판은 적
게는 1천부에서 많게는 2천5백부 정도 찍는데 1990년대 중반부

터는 영문판과 일문판을 별도로 1천부씩 펴내는 경우가 일반화됐
다. 월드컵을 앞둔 요즘은 중국어판도 발행한다.

관형과 디자인에서 대중 겨냥한 사례 늘어

박물관 도록은 제작비가 많이 든
다. 사진, 원고, 원색분해 등 제작
비가 권당 2천만원에서 많게는 4천
만원 이상이다. 원색분해에 공을 덜 들이면 백자가 청자처럼 보일
때도 있어 여러모로 신경쓰이는 점도 많다. 이런 부담에도 출판사
들이 도록 출판에 뛰어드는 이유는 박물관에서 초판의 50% 정도
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 박물관은 이
렇게 구입한 책을 전국 박물관, 공공립 도서관, 해외 한국학 개설
대학 등에 무료로 보내준다. 나머지 8백~1천부를 박물관 내 상품
점이나 서점 등에서 소화하는데, 재판을 찍는 경우는 거의 없다.
박물관 도록은 전시회 기간에만 판매된다는 점이 특징이다. 게다가
제법 규모가 큰 국립박물관 이외의 사립, 특수, 대학박물관들은
도록 제작에 투입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 대부분 박물관 내부
인력을 동원해 편집까지 직접 하는 형편이니, 소규모·소량 출판
으로 갈 수밖에 없다. 서울대, 이화여대, 고려대 등 몇몇을 제외한
대학박물관들은 출판사나 인쇄소를 공개 입찰해 좀더 낮은 가격을
제시하는 쪽과 작업을 하는 실정이다.

이화여대 미술사학과 강우방 교수는 우리나라 도록 출판의 수준
을 낮게 평가한다. “외국의 경우 3~5년의 준비기간을 거쳐서 제
대로 된 연구 성과를 기획전에 담아내기 때문에 도록의 수준도 높
다. 그런 책들은 날개돋친 듯 팔려나간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기
획전의 준비기간은 보통 3~5개월이니 전시문화의 토대가 약한 편
이다. 고려대박물관 김상덕 학예연구관은 “미국은 도록에 실릴 학
자들의 논문을 쉬운 말로 풀어내는 전문 카피라이터가 있다. 우리
도 이런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한다. 미술문화의 지미
정 대표는 “박물관의 운영방식이 좀더 민주화될 필요가 있다. 도록
의 기획 단계부터 출판사와 공동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도입된다면
박물관 도록도 충분히 다채로워질 수 있다”고 말한다.

최근에는 값비싼 원판 외에 3천원에서 8천원 정도의 저렴한 보
급판을 대량 제작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사례도 있고,
북디자인에 신경을 쓴 책들도 속속 나오고 있어 도록 대중화를 어
는 정도 예감케 한다. —강성민기자